



 <p>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p> <p>http://www.emerics.org/</p> <p>2018. 11. 12. 동남아시아</p>	<p>「이슈&트렌드」</p> <p>인도 - 일본 정상회담 성과와 전망</p> <p>작성 이정미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p>
--	---

- 2018년 10월 28~29일 인도 모디 총리는 일본 도쿄를 방문, 아베 총리와 5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해 지난 4년간 양국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함.¹⁾
-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지역질서 구축에 있어서의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밝힘.
 - 특히 양국의 대외전략(인도의 신동방 정책(Act East Policy)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치점인 아세안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조함.²⁾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국방 장관급 2+2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고속철 프로젝트를 포함한 7개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3,160억 달러 규모의 차관, 75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상회담 기간 양국은 안보, 디지털 및 신기술, 경제, 과학기술, 학술교류 등 분야에서 32개의 협정을 체결함.³⁾
 - 또한 일본은 29일 인도 주도의 국제태양광연합(ISA)가입을 발표하면서 국제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
- 인도는 일본과의 연례 정상회담을 통해 명확한 비전과 협력분야를 제시하고, 양국은 정상회담 논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완 및 강화하고 있음.
- 2014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인도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2015년에는 ‘일·인도 메이크 인 인디아 특별금융기금’을 조성, 2017년에는 ‘일-인도 투자 촉진 로드맵’을 체결한 것과 같이 관련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표1은 2017년 정상회담 이후 일-인도 협력 추진 현황으로 양국의 협력이 다방면에서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2017년 이후 양국 협력 현황

분 류	주요 내용
제3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프라 중심의 개발 협력 확대: 스리랑카 LNG 인프라 개발, 미얀마

- 1) 이번 회담은 2017년 9월 인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정상회담이 정례화 된 2005년 이후 13번째 정상회담임.
- 2) 인도-일본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을 도모할 것이며, 아세안의 '통일성(Unity)'과 '중심성(Centrality)'은 인도-태평양 개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함.
- 3) 인도외교부(2018.10.29.) List of Announcements/Agreements signed between India and Japan during visit of Prime Minister to Japan

	라킨(Rakhine)주 주거, 교육, 전기화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도로 및 다리 건설, 케냐 중소기업 개발 세미나 주최 및 암병원 설립 등
신동방(Act East)포럼	인도 신동방(Act East)정책의 중점지인 인도 북동지역 개발을 위한 신동방(Act East)포럼 개최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2018년 10월 8일 개최된 2차 포럼에서는 메갈라야, 미조람 지역의 연계성 확대, 시킴, 나갈랜드 지역의 환경 보전, 기술 직업훈련, 일본어 교육, 재해 관리 등 논의
ODA	일본은 인도에 뭄바이 지하철 프로젝트, 첸나이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유상원조와 바라나시 컨벤션 센터 건립 및 교통 혼잡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무상 원조 등을 제공
철도	뭄바이-아메다바드 고속철도, 델리-뭄바이 간 서부산업철도 건설 진행과 관련 기술 협력 및 훈련
제조	2017년 9월 체결된 일-인도 투자 진흥 로드맵을 토대로 2018년 7월 구자라트에 JETRO의 비즈니스 지원센터 개설, 일본과 인도에서 다수의 투자 촉진 세미나 개최, 일본전용공단(JITs) 개발 등을 했으며, 양국은 DMIC 프로젝트의 일환인 물류데이터뱅크프로젝트(Logistics Data Bank Project)와 단일창구발전적모델(Advanced Model Single Window)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일본 기업의 인도 내 경영 환경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계획
인적자원개발	인도에서의 JIM(Japan India Institute of Manufacturing), JEC(Japanese Endowed Courses)와 일본에서의 TITP(Technical Intern Training Program)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디지털	Society 5.0,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스마트시티(Smart City),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관련 다수의 협력
농림수산업	농업 생산, 식품가공, 수산업, 임업에 대한 연구협력,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	2018년 4월 인도 첸나이에서 개최된 국방 엑스포에 일본 국방부의 ATLA(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gency)가 참가, 국방장비 및 기술협력 공동작업 그룹 개최 등
재난위험경감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워크숍 개최
과학기술 및 학술	지속가능발전(SATREPS) 프로그램, 신약개발 및 질병 치료 연구실 설립, 우주분야 협력 공동작업반 개최, 대학 간 MOU 체결 등
일본어 교육	2017년 9월 체결된 일본어 교육 확대 협력각서(향후 5년간 1,000명의 일본어 교사 연수, 100개의 코스 설립)체결을 이행하기 위해 2018년 7월 네루대학교 인적자원개발 센터에 일본어 교사 연수센터 설립

자료: 인도외교부(2018.10.29.) India-Japan Fact Sheets

- 양국은 2017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자 간 협력에서 나아가 제3국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양국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⁴⁾
- 양국은 인도의 낙후지역인 북동부 지역의 인프라 개발, 연계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함.
 - 인도는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미얀마와 접경한 북동부 지역을 인도의 신동방 정책의 핵심지역으로 규정한 바 있음.
 - 이번 정상회담 기간 양국은 제3국에서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인도 수출신용보증기관(ECGC)과 일본무역보험(NEXI)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함.⁵⁾ **EMERiCs**

4) 2017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아시아-아프리카 연결성 증진 위한 “아시아-아프리카 성장회랑(AAGC)” 협력을 가속하는데 합의했으며, 인도 북동부 지역 개발을 위한 인도-일본 신동방(Act East) 포럼 설립을 합의함.

5) MOU는 △일본과 인도 기업의 협력사업 또는 제3국에서의 공동사업에 관한 정보교환 △상호 인적자원 훈련 △국제무역보험제도 관련 의견교환 △채권회수 협력 △향후의 재보험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자료: NEXI 보도자료(2018.10.30.) Conclusion of MOU between NEXI and ECGC Concerning Cooperation toward Economic Development)